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24.35	↓ 코스닥	822.48
	(-18.94)		(-6.93)
↑ 금리 (미국 9년)	3.060	↓ 환율 (원/달러)	1381.25
	(+0.010)		(-0.25)



“벤처투자 편중 심화 성장가능기업 투자를”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평균 수명 100세’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중장기 자산관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가운데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가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 ‘100세 시대 안 전망’을 마련할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강연이 구성됐다.

〈관련기사 L7·L8면〉

포럼 전 차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0세 플러스 포럼을 두고 “현시점에서 ‘중장기 자산 관리’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리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부도 ‘자산 관리’를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번 하반기부터 22대 국회와 구체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중장기 자산관리 중요성 강조 금투세 업계 우려·재논의 대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벤처 시장, 미래 볼 수 있어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밸류업이 화두인 시기에 이런 포럼이 열려 감사하다”며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차담회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기관장들과 증권사 대표들의 관심은 ‘금융투자소비세’와 ‘벤처 투자’로 몰렸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의장은 “펀드가 망하게 생겼다”며 금투세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현재는 국내 주식 매도 차익에서 나오는 결산 분배금은 비과세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증권사 대표들도 금투세 도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 회장은 “다음주에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나오면 알게 될 것”이라며 여야의 팽팽한 대립을 예상했다.

또한 벤처 투자가 다양한 섹터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 시장은 주식시장과 다르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 참석해 내빈들과 대화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4~5년 후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벤처 투자는) 상상력이 필요한 섹터지만 투자 편중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서 회장은 “최근에는 모범 기업에 자금이 안 흐른다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고 동감했고, 이 원장도 가능성 있는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으면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이 공유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채원 의장은 밸류업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정의하며, ‘코리아 밸류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기업 거버넌스가 투명한 기업에 가치를 두고 투자할 것을 권했다.

그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세법 개정과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산 관리 부분의 강의를 맡은 김경록 미래셋자산운용 고문은 자산의 ‘축적기’와 ‘인출기’의 차이를 설명하며 인출기에는 ‘상품 배분’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평균수명 이후의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자세한 예시도 들었다.

이어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은 양극화된 국내 부동산 시장과 진단하고, 향후 부동산 투자 시장을 전망했다.

끝으로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팀장은 최근 활발해진 ‘미국 투자’ 분야의 전략을 소개하며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주주환원을 실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어대한’ vs ‘어대명’, 여야 강대강 불보듯

전당대회

與 한동훈, 野 이재명 선출면
국회 담보상태 지속 가능성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에 등판한 가운데, 두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22대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 상황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대권 후보로 평가받는 두 사람은 22대 총선에서 당을 이끌며 서로 네거티브 공세로 맞붙었는데, 갖가지 쟁점 사안으로 충돌한 이번 국회를 담보 상태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약 4주 간격으로 열린다. 국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민의힘은 지난 17일 최고위원·당 대표 후보 전국순회 합동연설회를 마쳤다.

이제 선거인단 모바일투표(19~20일), 선거인단 ARS투표(21~22일), 일반국민 여론조사(21~22일)를 통해 당 지도부를 꾸린다. 오는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한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와 인천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선거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는데,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 투표 결과를 다음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감지돼 전당대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윤상현·원희룡 후보 등 당의 중진들이 나왔으나 여론조사 상 한동훈 후보에게 지지가 쏠리는 모습이다.

〈4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집중호우로 통제된 잠수교

18일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서울 서초구 잠수교 보행로 및 차도가 통제되어 있다. /뉴스1

“수도권 주택 2만가구 이상 추가공급”

최상목 부총리, 주택시장 점검
2029년까지 23.6만가구 분양
공공매입임대 1만호 이상 추가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 또 수도권 주택공급을 2만가구 이상 늘릴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늘린다.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8면에 계속〉

/김대환 기자 kdh@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윤, 체코 원전 수주 위해 두 차례 특사·친서 보내… “됐다” 환호 /뉴스1
- ▲ 한동훈, 나 ‘공소 취소 청탁’ 발언 사과… “평화할 생각 아니었다”

- ▲ 국방부 “예비군 훈련 180일 확대? 검토 안해”
- ▲ 민주 “우 의장 방송법 중재 방안 수용… 민생지원금 등은 25일 처리”



- ▲ 조국 ‘국힘 댓글팀·공소 취소 청탁’ 등 수사 촉구… “고발 검토” /사진뉴스1
- ▲ 추경호, 장미란 차관 만나 ‘추구협회 감독 선임 논란’ 논의